주민부담 완화 상수도 급수율↑

진안군, 3월부터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제 방식 시행… 물 복지 실현 최선

진안군이 오는 3월부터 상수도 급수 인구 확대를 위한 군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급수공사비 산정방식을 정액제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현재 급수관 연결 거리와 계량기 구경에 따라 설계로 산출한 실액제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상수도관과 거리가 먼 세대는 높은 급수 공사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방식으로 실제 공사 신청 후 높은 공사 비용으로 인해 중도 취소한 사례가 30여건이 넘게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상수도가 보급된 마을에서도 비용 부담으로 인해 계곡수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세대도 다수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에 진안군은 주민부담을 완화해

공사 현장 모습

현재 92.8%인 상수도 보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번 급수공사비 정액제를 실시하게 됐다.

군은 급수공사비 정액제 실시 시 급수공사 신청 접수부터 급수관 연결 거리와 관계없이 가정용 및 일반용 건축물은 100M까지 급수공사비를 구경별 정액제로 개선하게 돼 주민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군민들의 상수도 행정 투명성과 효율성이 확보돼 많은 주민들에게 물 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계량기 구경이 25mm를 넘거나 농막을 포함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은 이번 정액제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공사비를 적용되며 급수공사 연장거리가 100M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거리에 대한 정액요금을 계상하여 적용하게 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각종 분야에서의 물가상승으로 군민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급수공사비 정액제 실시로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상수도 급수율을 높여 양질의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물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산림조합,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익산산림조합과 협약 맺어 상호 지역에 기부금 전달

장수군산림조합(조합장 한상대(사진))이 2023년 올해부터 시행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취지와 중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조합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수군청(군수 최훈식) 취지에 동참하기 위해 익산산림조합(조합장 김수성)과 협약을 맺어 상호 지역에 기부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조합에 따르면 각 조합장을 필두로 15명씩 각 조합의 전직원이 기부의사를 밝혔으며, 장수군과 익산시에 상호 150만원씩(직원별 10만원씩) '고향사랑e음'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한상대 조합장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간 상생발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분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우리 장수군에 더 많은 기부금이 기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인당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고향 사랑 e 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전국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기부금 접수가 가능하다. 모금된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치매예방 프로그램 착수

무주군이 올해도 치매안심마을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집중력과 기억력 등 인지기능을 개선시킬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어르신들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지기능 저하와 우울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무주군치매안심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무주읍 내동마을 사정마을을 시작으로 치매안심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증진과 치매 극복을 위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일 무주읍 내동마을과 사정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내동마을 경로당에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참여 치매안심마을 지역특화사업인 치매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치매예방 프로그램은 무주읍 내동 사정마을을 비롯해 무풍면 금적마을, 설천면 상길·이남 마을, 적상면 성내·길왕마을, 안성면 공진·덕곡·두문마을, 부남면 대소·고창마을 등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된 12개소에서 오는 3월까지 치매안심마을 경로당별 6회 운영 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외부 강사가 초청된 가운데 인지자극에 효과가 있는 치매예방체조와 실내운동, 옛 노래 부르기, 각종 공예 프로그램, 인지선별 및 우울증 선별검사 등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체조와 실내운동, 공예품 만들기 등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보행과 인지기능을 개선해 낙상과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두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부남면 대티마을 친환경연료 보급 착수

수변구역 주민 생활환경 · 복지 증진 위해 3월부터 사업 본격화

에너지 소외지역으로 분류됐던 무주군 부남면 대티마을 주민들이 친환경 에너지 사용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하게 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부남면 대티마을 친환경연료(LPG) 보급 사업이 올해 3월부터 본격화된다.

이 사업은 금강유역환경청 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2022년 특별지원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 17일 대티마을회관에서 공급 예정가구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갖고 사업 추진 과정과 목적, 방향,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전반적인 사업 개요 및 세부추진 일정과 LPG 저장설비 대상자 확정을 위한 주민 동의 여부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무주군 부남면 대티마을 주민설명회 모습

이 사업은 대티마을 50가구에 친환경연료 공급을 위한 배관망 저장설비와 지하매설배관, 가스보일러 등을 설치하며 총 사업비 6억3천9백여만 원이 투입된다.

친환경연료 보급사업이 마무리되면 에너지 소외를 극복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통해 천혜의 자연환경 보존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연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난방비 등 연료비 절감과 함께 노후된 시설에서의 유류 사용량 절감 등 효과도 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수변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뒤따를 전망이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안병량 팀장은 "친환경연료 보급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은 물론 에너지 소외지역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편, 금강수계 특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 제약을 받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는 광역적 중장기 사업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노인종합복지관, 4회 연속 시설평가 'A등급'

무주노인종합복지관이 4회 연속 시설평가 부문에서 A등급 받는 금자탑을 쌓아 올렸다.

무주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화와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3년마다 시행하는 시설평가에서 A등급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전문평가단을 구성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6개 영역(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시설운영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무주노인종합복지관을 A등급으로 평가했다.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노인종합복지관장(관장 이홍교)은 "앞으로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복지관 운영에 힘쓰며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화상병 확산 방지 위한 방제사업 추진

무주군은 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업인들의 과수원 출입 시 작업자와 작업도구의 철저한 방역지도에 나선다. 사과와 배 과수에 대한 본격적인 영농시기에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다.

국가검역관리 병해충인 '화상병'은 식물에게 걸리는 세균성 병으로 주로 사과나 배에서 광범위하게 발병하며 마치 화상을 입은 듯한 모습으로 검게 말라 죽는 증상을 보인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는 과수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상병에 대한 신속한 방제로 병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영농을 도모하기 위해 화상병 방제사업을 추진한다.

방제사업은 사업비 3억1200만 원이며 949농가 749.3ha 대상으로 1차 동계방제 약제와 2·3차 개화기 방제약제를 공급한다. 1차 동계방제는 3월 15일까지 해야 방제효과가 극대화 되고, 2·3차 개화기 방제는 5월 6일까지 공동방제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군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전정가위·톱 등 소형작업도구 공동 사용 금지 △과수원 청결관리 △주변 과수원 방문 자제 △작업 중 작업자·작업도구를 수시 소독할 것을 각 농가에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토양검정 따른 농업인 맞춤정보 제공

장수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에 앞서 한해 땅심을 높이고 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서 발급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토양검정은 pH(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석회소요량, EC(전기전도도) 등 토양 화학성을 정밀 분석함으로써 토양의 정확한 양분상태를 파악해 작목에 적합한 비료사용량을 알 수 있다.

군에서는 해마다 논, 밭, 시설토양 등 3,000여 점을 분석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함으로써 농가들이 적정한 비료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토양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대상 필지에서 5~6군데를 선정해 겉흙을 삽으로 긁어내고 깊이 0~15㎝ 부위의 작토층 흙을 500g 정도 채취해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 의뢰하면 된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를 통한 적정한 비료 시비는 농경지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토양 염류집적 등을 예방할 수 있다"며 "농한기인 2월은 농경지의 양분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최적기로 농가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소규모공중이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진안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물없는 세상 확대' 일환으로 관내 소규모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설이 아닌 300㎡미만의 일반음식점, 이·미용실, 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로 출입구 경사로, 자동출입문, 화장실 또는 계단 안전손잡이 설치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3월 3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설치를 위해서는 건물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군은 신청접수 후 현장 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약 15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